

소 교리문답 제9문

1. 오늘의 공부

제 9 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창: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 제9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찰흙 만들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이처럼 미리 정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죠? 예,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들 것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일은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일이겠죠. 토끼를 만들려고 했으면 토끼 몸통을 만들고, 꼬리를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이면 토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8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비가오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천국 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교만'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사탄의 생각이란 것을 알아야 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천국 간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답니다.

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찰흙 만들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찰흙 만들기를 아주 잘한다면 그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에게 '나 찰흙 만들기를 아주 잘해. 토끼도 잘 만들고 호랑이도 잘 만들어'라고 말만하면 솜씨를 보여줄 수가 없죠? 솜씨를 보여주려면 찰흙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요. 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직접 그려봐야 그 실력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도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아무 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과학자들의 말도 증명될 수 없는 사

람들의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가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데도 하나님
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 잘못 만들었다’라고 후회할만한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
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
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았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께 받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같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
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다르답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②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③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입니다.

④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에 보여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느낀 대로 말해 볼까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짓고 그 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그 마음을 생각 해 본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10문 :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6. 기타 과제 창1:26 (성경도 미리 읽어 오세요)